# 오늘의 게시판

## 인터넷 중독 예방 세미나 오후 1시30분 전남대 용봉문화관

### 행사

〈28일〉

▲제 95차 광주경제포럼=오전 7시 광주 신양파크호텔 그랜드볼룸 1층. 민승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이 '벤처농업에서 찾아보는 뉴 비지니스'를 주제로 강연.

▲제 7회 내고장 문화유산 홍보대회=오전 10시 담양군 문화회관 대강당. 22개 시·군에서 문화해설사 등 244명 참석 예정.

▲정율성 국제음악제 기자회견=오전 11시 광주시 남구청 대회의실.

▲인터넷 중독 예방 세미나=오후 1시30분 전남대 용봉문화관. 이형초 청소년심리상담센터 소장과 임은미 전주대 교수가 '인터넷 중독 진단 및 상담', '청소년 자녀의 인터넷 건전 사용 지도'에 대해 주제 발표.

▲작가 초청 문학 강연회=오후 2시 강진군립도서관 시청각실. '청자의 혼'의 시인 명기환씨가 '시인이 되는 길-영랑의 모란골을 시의 마을로 만들자'라는 주제로 강연.

▲토지정의 실현과 바른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한 제 1회 토지학교=오후 3시 조선대 본관 다목적 세미나실. 김윤상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구체적 실행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

▲2006 광주환경운동연합 후원의 밤=오후 6시30분 광주환경운동연합 대강당.

〈29일〉

▲SP Steel사 준공식=오전 11시 광주시 광산구 월전동 현장.

▲씨너스 전대 개관식=오후 3시 광주시 북구 중흥 2동 북구청 맞은편 씨너스. 7개관을 갖춘 멀티플렉스 영화관으로, 전국 15번째 지점 개관식.

### 공연

▲뿌리 깊은 나무 셋 '한국의 첫 사제 김대건'=28~29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광주시 북구 합창단 제 6회 정기연주회=28일(화)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김은숙 가야금 병창 발표회=29일(수)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 전시

▲우리 산하 아름다움전=29일까지 자리아트 갤러리. 의재 허백련 선생의 제자들로 구성된 연진회원들의 회원전.

▲숲의 이야기전=30일까지 일곡갤러리. 숲을 캔버스에 담아온 박유자씨의 개인전.

▲기독교 미술협회전=12월6일까지 상계갤러리. 광주기독교 미술인협회전.

▲신동철 개인전=30일까지 북광주우체국 갤러리. 사찰과 남도 풍광을 담은 한국화 작품 전시.

▲스페인, 세기의 거장전=12월3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파블로 피카소, 후안 미로, 안토니 타피에스 등 스페인 유명작가 작품 40점 전시.

▲수묵회 회원전=29일까지 궁동 상계갤러리. 강형채, 구영주, 김인선, 박안수, 박희석씨 등 수묵회원 작품 전시.

▲광주대 사진영상학과 작품전=12월1일까지 광주대 예술대 3층 갤러리, 중앙도서관 세미나실.

▲국제환경 사진전=30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공간. '물 오르다'라는 주제로, 물의 역사·문화·미학·사회학 등 물의 모든 측면을 조명. 김수남·박종우 등 국내작가 9명, 프랑스 마리 폴 네그르 등 해외학자 32명 등 41명 참여. 물 오르다·씻김·영혼의 선물·물의 행성 등 4개 섹션으로 구성.

▲광주비엔날레 기념 '손아유전'=12월 3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2층.

▲동양척식회사 복원기념 특별사진전=목포시 중앙동 2가 6번지 구 동양척식회사. 목포시가 수집한 사진 200점 전시. 올해 말까지.

## 역사속의 오늘

▲독립운동가 서재필 태어남 (1864)
▲'독립신문'발간(1896)
▲진단학회, 〈진단학보〉 창간(1934)
▲뉴질랜드의 DC-10RL, 남극의 산에 추락. 257명 사망(1979)
▲한일간 해저케이블 개통(1980)
▲새만금 간척종합사업 기공(1991)

## 뉴스퀴즈

40. 최근 열린 제 5회 대한민국 영화대상에서 이 영화가 감독상 등 6개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이 영화는 이날 시상식에서 작품상·감독상·촬영상·조명상·시각효과상·음향상 등 6개 부문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1천300만명의 관객을 동원, 한국 영화사상 흥행 기록을 다시 쓴 이 영화는 역대 개봉일 최다 관객(45만3006명) 등 각종 신기록을 쏟아내며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무슨 영화일까요.

① 괴물 ② 타짜 ③ 비열한 거리 ④ 짝패

**참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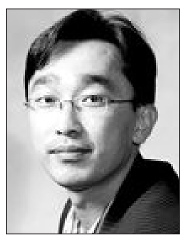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 I love MY student

# 아이들 이야기 속에 담긴 미래



박성광
〈광주서초 교사〉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간혹 엉뚱하다 싶은 질문을 받기도 하고, 어른들이 쉽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발상에 깜짝 놀라곤 한다.

가끔은 엉뚱하다고 혼나기도 하지만, 그 엉뚱함 속에 세상을 변화시킬 아이디어가 숨어 있곤 한다.

몇 년 전까지 광주시교육청에서 주최하는 학생창의성대회가 있었다. 주어진 주제를 일정 기간 동안 해결하고 그 결과물을 보고서로 제출하는 대회였다.

5년 전 우리 반 학생 2명과 함께 지도교사로 이 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

당시 주어진 과제는 '광주를 전세계 어느 누구라도 한번쯤 방문해 보고 싶은 도시로 만들려면 어떻게 도시를 변화시켜야 할 것인가?'였다.

우선 팀 이름을 정하기로 하고 첫 회의를 시작하는데 한 녀석이 팀 이름은 '하수처리장'이라고 해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고 나섰다. 하수처리장처럼 찌꺼기는 걸러내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의미란 설명에 고개를 절로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일주일을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 조사만을 하고 그대로 보내버렸다.

교사의 욕심이 앞서서인지 시간만 허비하는 녀석들을 채근하고 달래기를 몇 일, 어른들이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눈앞에 제시한 것은 결과물 제출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이었다.

광주를 상징하는 삼향(미향, 예향, 의향)에 세계적인 자연형 생태도시를 만든다는 기획이었다.

광주천을 중심으로 그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일정 구역별로 구분하여 특색있는 공간으로 구성한다는 발상이었다.

광주천이 시작되는 무등산 지역은 예향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광주공원 인근 지역은 미향의 공간, 상무지구 근처는 의향의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광주천이 영산강으로 이어지는 평동공단 인근 지역은 세계적인 생태체험공간 및 친환경 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기획이었다.

광주천은 실제로 지난해 큰 변화가 있었다.

시멘트로 둘러싸인 주차장과 잡풀로 무성하던 공간이 시민의 쉼터로 돌아오고, 교각의 풍경도 멋스럽게 바뀌었다.

하지만 나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아이들의 기발한 발상들을 조금만 고려하고 아이들의 눈으로 주위를 살폈다면 광주천도 주제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공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5년 전 광주천을 생각하며 기발한 생각들을 펼쳐내었던 그 아이들은 지금의 광주천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그 아이들이 문득 그리워진다.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8일(음 10월 8일 辛酉)

**子** 36년생 내실을 기하면 이득이 있을 수다. 48년생 오후부터는 혁신적인 변화가 있다. 60년생 대계는 大益하니 의심 없이 추구하라. 72년생 욕심을 줄여야 할 판이다. 84년생 친구의 도움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05, 26

**丑** 37년생 타인과 구설수는 본인의 잘못이다. 49년생 아내의 건강에 유념하라. 61년생 사기에 말려들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라. 73년생 천지가 방해하지 않는 한 길할 수다. 85년생 발전하는 진로를 발견한다. 행운의 숫자 : 01, 35

**寅** 38년생 오후부터는 제 페이스를 찾는다. 50년생 금전거래에는 더한 신중이 필요하다. 62년생 아랫사람만 잘 다스리면 만사가 형통한다. 74년생 재물로 일고를 감수해야하고 더욱 심하면 분쟁이 발생한다. 행운의 숫자 : 18, 32

**卯** 39년생 미끄러운 내리막길에서 놀랄 일이 다발한다. 51년생 자기노선을 찾았으나 급진하면 불편하다. 63년생 주변과 유대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75년생 금전거래에 시비가 나타날 수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4, 42

**辰** 40년생 아는 도끼에 발등 찍힐 운로니 정신 빠짝 차려야 할 것이다. 52년생 신사참여는 절대로 불가할 수다. 64년생 음양이 교체되니 신중을 잃지 마라. 76년생 신사에 적극 참여해도 무리가 없다. 행운의 숫자 : 06, 28

**巳** 41년생 재복과 여복이 자래하지만 중정을 지키라. 53년생 적극적인 길수 표현된 것은 아니지만 희망찬 진행이 가속된다. 65년생 일희일비하나 결과는 안정권으로 진행할 수다. 77년생 잔고하지 말고 결단하라. 행운의 숫자 : 02, 43

**午** 42년생 부담스런 하루이나 상큼하게 지내라. 54년생 과욕하면 절망이 따르나 욕심을 버리면 오히려 큰 덕을 본다. 66년생 희망찬 하루가 된다. 78년생 애인이 생기지만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행운의 숫자 : 09, 36

**未** 43년생 내조자와 協助處를 만나는 형상이다. 55년생 욕심을 버리면 오히려 큰 득이 있다. 67년생 어떠한 새로운 일에도 끼어들지 마라. 79년생 주변에서 합당하게 꾀어도 말려들지 마라. 행운의 숫자 : 07, 40

**申** 44년생 호랑이에게 물린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56년생 미운사람이 나타나지만 화해하면 내 사람이 된다. 68년생 협력자는 나타나나 큰 도움은 못준다. 80년생 미운사람이 아첨하며 내편으로 들어온다. 행운의 숫자 : 21, 25

**酉** 45년생 주변이 도와서 가정이 吉함으로 바뀐다. 57년생 마무리가 좋을 수다. 69년생 매사를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야하고 절대변동하면서 무리하지 마라. 81년생 가내 병고 송사 시비 극히 조심해야 할 수다. 행운의 숫자 : 14, 38

**戌** 46년생 財破를 불러오니 아는 길도 물어가라. 58년생 희망이 문전에 있고 의외의 협조자가 나타난다. 70년생 모든 일이 순해하며 행운을 얻을 것이다. 82년생 일마다 퇴색하고 범사가 불리하다. 행운의 숫자 : 17,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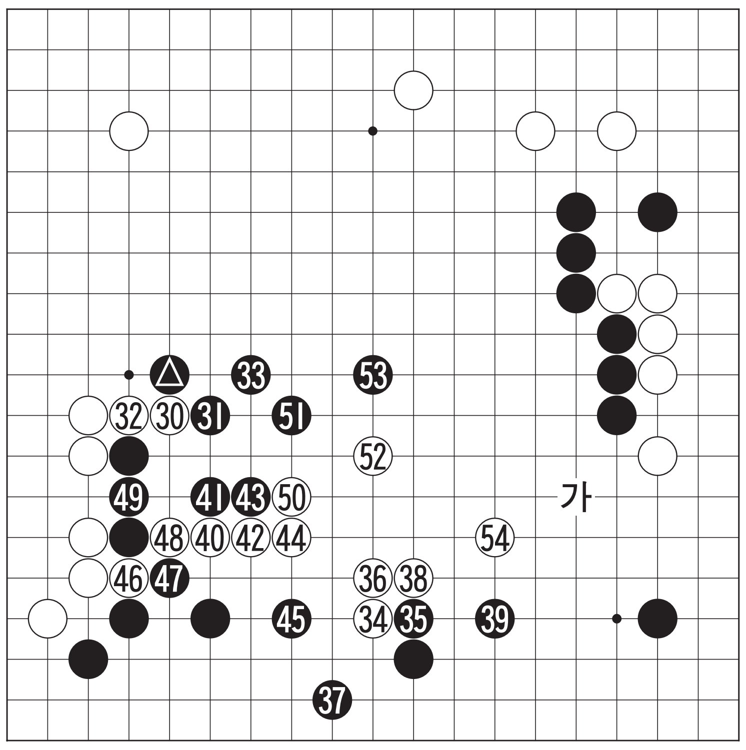
**亥** 47년생 지난 일이 괴롭지만 좋은 일로 연결된다. 59년생 좋을 듯한 연결이 불편스럽게 나타난다. 71년생 異性間에 흉사만 남고 부부설전이 예상된다. 83년생 귀안의 도움이 있고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어간다. 행운의 숫자 : 03,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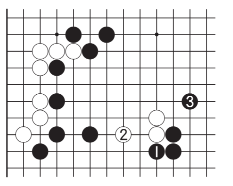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 제15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바둑대회

### 틀에 얽매인 흑 37 3보(30~54)

白 이강민 5단 〈PGA생명〉 黑 유병수 5단 〈포스코〉



〈참고도〉

흑 ▲는 스케일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역시 '가'에 두어 우변을 봉쇄하는 것이 좋았다.

이 5단은 30으로 붙여 응수를 물어보고 나서 드디어 34로 짚어 삭감에 나선다. 이 수는 38에 모자를 씌우는 것이 제일감이다. 그러나 우변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책이다.

흑 37은 모양의 급소로 정수이긴 하나 지금은 수비가 아니라 공격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이 수로는 '참고도'의 흑 1로 하나 밀어둔 다음 3으로 요소에 두어 공격을 하는 것이 유력했다.

'정석은 외운 다음 잊어버려라'는 격언이 있다. 이것은 유연성이 떨어질 것을 경계하는 경구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꼭 필요한 금언이다.

백 38로 꼬부려서는 쉽게 공격권을 벗어났고 54까지 백이 오히려 중앙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장면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생활의중심 SK telecom KRA 한국마사회

## 바둑소식

### 박영훈 9단, 농심배 3연승

박영훈 9단이 27일 부산 농심호텔에서 열린 제8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 제10국에서 중국의 천야오예 5단을 270수 만에 흑 2집반으로 꺾었다.

박 9단은 5연승을 달리던 중국의 펑첸 7단과 일본의 다카오신지 9단을 꺾은 데 이어 이날 승리를 추가함에 따라 3연승을 기록, 연승 상금 1천만원을 손에 넣게됐다.

한국은 박 9단의 활약으로 주장 이창호 9단까지 2차전에 투입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다. 농심배 3차전은 2007년 2월6일 중국 상해에서 속개된다. 이 대회 우승상금은 1억 5천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굿모닝 잉글리쉬 <785>

### Is that you?

### 자넨가?

A : Mr.Cho. **is that you?**
B : Yeah.
A : What on earth are you doing up there?
B : I'm trying to fix a bird house.
A : Are you all right?

A : 조 선생, **자넨가?**
B : 네.
A : 도대체 그 위에서 뭐하나?
B : 새집을 고치려고 하는 중인데요.
A : 괜찮겠어?

up there : 그 위에서
fix : 수리하다(=mend, repair)
- I had my tape recorder fixed'repaired'
all right : 좋다 : 더할 나위 없이'없는' : 무사히'한' : 확실히.
a birdhouse = a bird(´s) nest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 오하이오 니혼고 <785>

### 風邪をひきませんか?

### 감기 안 걸립니까?

A : 毎日、寒いですね。でもそんな薄着(うすぎ)で、**風邪をひきませんか?**
B : 私は、毎日運動をして、体を鍛(きた)えていますから、大丈夫ですよ。
A : 私は、無精(ぶしょう)だから。見てください、ほら…重(かさ)ね着(ぎ)ですよ。
B : でも着膨れして、見かけはあまりよくありませんよ。同(おな)じ重(かさ)ね着(ぎ)でも、もっと薄手(うすで)のものを着たらいいですよ。

A : 매일 춥군요. 근데, 그런 얇은 옷으로 **감기 안 걸립니까?**
B : 저는 매일 운동을 해서 몸을 단련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A : 저는 게을러서…. 보세요, 자……, 많이 껴입었어요.
B : 하지만, 옷 때문에 뚱뚱해져서 겉보기는 그다지 좋지 않아요. 똑같이 많이 껴입더라도 좀 더 얇은 것을 입으면 좋아요.

薄着(うすぎ) : 옷을 얇게 입음
風邪(かぜ)をひく : 감기에 걸리다
鍛(きた)える : 단련하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 니하오 쭝구워 <503>

### 够朋友

### 친구로서 훌륭하다

A : 有什么问题尽管说，别客气。
Yǒu shénme wèntí jǐnguǎn shuō, bié kèqi.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마음 놓고 얘기 해. 어려워하지 말고.)
B : 你已经帮了我不少了，够朋友呢！
Nǐ yǐjīng bāng le wǒ bùshǎo le, gòu péngyou ne!
(넌 이미 나를 많이 도와주었어. 친구로서 훌륭해.)
A : 我们俩谁跟谁呀。
Wǒmen liǎ shéi gēn shéi ya. [illegible]
B : 对，有困难我一定说。
Duì, yǒu kùnnan wǒ yídìng shuō.
[illegible]

A :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마음 놓고 얘기 해. 어려워하지 말고.
B : 넌 이미 나를 많이 도와주었어. **친구로서 훌륭해.**
A : 우리끼리 [illegible].
B : 맞아, 어려움이 있으면 꼭 이야기할게.

尽管 [jǐnguǎn] [illegible]
够朋友 [gòu péngyou] 친구로서 훌륭하다
困难 [kùnnan] 곤란, 어려움

〈공자아카데미〉
www.cis.or.kr ☎ 02-3452-6775

## 한자 이야기 <503>

### 指鹿爲馬 (지록위마)

### 가리킬 지, 사슴 록, 할 위, 말 마

지록위마(指鹿爲馬)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뜻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을 두고 한말이다.

진시황제는 재위한지 37년 순행(巡幸) 도중에 하북성의 사구(沙丘)에서 50세로 죽고 말았다. 죽기 전 시황제는 장남인 부소(扶蘇)에게 "즉시 도읍인 함양에 돌아와 장례를 치르라"는 조서를 환관 조고(趙高)에게 맡겼다. 그 당시 부소는 '분서갱유(焚書坑儒)'를 말리다가 북쪽 변방으로 추방당했었다. 조고는 시황제의 차남인 호해(胡亥)와 승상 이사와 모의를 하여 맡아둔 조서를 파기하고 가짜 조서를 두통 만들었다. 한통은 호해를 황태자로 삼아 새 황제에 즉위시키라는 것이고, 또 한통은 부소와 몽염(蒙恬)장군에게 죽음을 내리라는 것이었다. 두 사람이 자살한 뒤 호해는 즉위하여 이세황제(二世皇帝)가 되었다. 그 후 조고는 권력을 독점하려고 결국 승상 이사도 죽이고 자신이 승상이 되어 황제의 자리를 넘보았다. 하루는 조고가 이세황제에게 사슴을 바치며 "말입니다"했다. 이세황제가 웃으며 "승상이 잘못 알고 있다. 사슴을 말이라고 한다"하고 신하를 둘러보니 일부 아첨꾼은 "말입니다"하고, 또 "사슴입니다"라고 대답한 자도 있었다. 조고는 사슴이라고 대답한 자들을 모두 죽여 버렸기 때문에 신하들은 조고를 매우 두려워하였다고 한다.

〈한예원(韓睿嫄)〉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 ☎ 230-6505